

# 보도자료

2013. 8. 1.



##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공보관실

담당자

홍보심의관 이현복 (☎ 3480-1453)

공보관실 ☎ 3480-1451

### 대법원, 초등학생을 위한 하계방학기간 법교육 프로그램

#### 운영개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꼬마 판사-

#### 1. 대법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추진 취지 및 경과

- 2013. 4. 대법원의 상설 소통TF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법원전시관 관리부서인 공보관실에서 주무(2013. 4. 신규채용 전문 학예사)를 맡아 교육 프로그램 기획·제작 업무를 추진
- 그동안 대법원이 자체적인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운영한 적은 없었으나, 대법원과 대법관, 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수요에 부응하고,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발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게 됨

#### 2. 모집방식 및 모집결과

- 모집기간 : 2013. 7. 15.(월) 오전 10:00부터 2013. 7. 24.(수) 18:00
- 모집방법 : 대법원 블로그([http://blog.naver.com/law\\_zzang](http://blog.naver.com/law_zzang))에서 신청양식에 따라 댓글 작성(선착순)
- 모집결과 : 모집개시 당일(2013. 7. 15.) 17:20에 정원(105명)을 초과(261)

명)하여 당일 접수마감

○ 참가자 분포

- 지역 :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이며, 가장 원거리로 춘천에서도 참가함
- 나이 : 4·5·6학년 골고루 분포

### 3. 대법원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내역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2013. 8. 1. ~ 2013. 8. 22. 사이 주 2회(화·목), 총 7회 운영
- 오전 10:00 ~ 12:00까지 약 2시간동안 진행

○ 참가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 교육장소 : 대법원 동관 1층 법원전시관

○ 교 육 명 : 『타임머신을 타고 온 꼬마 판사』

○ 교육 방법·내용·효과 등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교육 효과
실물 학습	법원전시관·대법정 관람	법과 법원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체득
	판사와의 대화	
체험 학습	법과 법원의 역사, 사법제도가 가지는 의미, 현대 사회에서의 청소년의 법의식 고취 등을 위한 교육교재를 팝업북으로 완성	교육교재를 통해 법과 법원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도록 하여 탐구심 및 관심도 고취
	참여 어린이가 판사가 되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직접 작성해 보는 체험	학교폭력을 제3자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세 및 문제해결능력 제고

### 4. 최초 시행내역(2013. 8. 1. 10:00, 법원전시관)

- 자운초등학교 4학년 김영빈 등 서울 시내 8개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학생 15명이 참가함
-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김영빈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으로 법과 법원, 판사에 대한 체험을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이 왜 중요한지를 느꼈

고, 특히 법복을 입어보고 판결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체험이 인상 깊었으며 다음에는 재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으며, 대부분의 참가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앞으로도 대법원의 청소년을 위한 방학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음

## 5. 향후 계획

- 최초 시행하는 하계 방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더욱 완성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동계 방학에는 중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시행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대법원 교육 프로그램 수요에 부응할 계획임
- 이번 대법원의 교육 프로그램 시행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사법부를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 1.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추진 취지

- 사법부를 대표하는 법문화 교육공간 마련을 표방하며 2013. 3. 재개관한 대법원 법원전시관은 올 여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명칭 : 타임머신을 타고 온 꼬마 판사)을 운영함으로써 법교육에 관심있는 초등학교생과 학부모에게 내실 있는 법문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그동안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왔으나, 대법원이 자체적인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운영한 적은 없음
- 대법원은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법원과 대법관, 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수요에 부응하고,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발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게 됨

## 2. 추진 경과

### 가. 소통TF에서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계획을 수립

- 법원전시관 내 기획전시실을 활용한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

### 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에서 교육 프로그램 기획·제작·운영

- 공보관실이 교육 프로그램 총괄 기획·제작·운영 담당
- 법원전시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2013. 4. 신규 채용한 전문 학예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제작(경력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등에서 5년 간 학예사로 근무)

### 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통해 산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집 홍보

- 법원행정처(공보관실)에서 서울시 교육청에게 산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참가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2013. 7. 10.)

## 3. 시행 현황

#### ■ 모집

- 대상 : 초등학생 고학년(4 ~ 6학년), 총 7회(1회당 15명)로 105명 모집
- 기간 : 2013. 7. 15.(월) 오전 10:00부터 2013. 7. 24.(수) 18:00
- 방법 : 대법원 블로그에서 신청양식에 따라 댓글 작성(선착순)

#### ■ 모집 결과

- 시행 초기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얻어 조기 마감됨
- 모집개시 당일(2013. 7. 15. 17:20) 정원(105명)을 초과(261명)하여 접수 마감

#### ■ 참가자 분포

- 지역 :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이며, 가장 원거리로 춘천에서도 참가함
- 나이 : 4·5·6학년 골고루 분포

#### 4. 교육 프로그램 구성

■ 운영기간 : 2013. 8. 1. ~ 2013. 8. 22. 주 2회(화·목) 10:00 ~ 12:00

총 7회 운영

■ 교육장소 : 대법원 동관 1층 법원전시관

■ 교 육 명 : 『타임머신을 타고 온 꼬마 판사』

■ 목적 :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법원과 대법관, 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수요에 부응하고,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발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가 소통하고, 초등학생들에게 법과 법원의 과거·현재·미래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꿈나무들이 올바른 법의식을 가진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육 방법 · 내용 · 효과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교육 효과
실물학습	법원전시관·대법정 관람	법과 법원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체득
	판사와의 대화	
체험 학습	법과 법원의 역사, 사법제도가 가지는 의미, 현대 사회에서의 청소년의 법의식 고취 등을 위한 교육교재를 팝업북으로 완성	교육교재를 통해 법과 법원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도록 하여 탐구심 및 관심도 고취
	참여 어린이가 판사가 되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직접 작성해 보는 체험	학교폭력을 제3자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세 및 문제해결능력 제고

■ 교육 프로그램 세부 일정 및 활동

시대	학습과정	시간	학습·체험 활동
현재	도입	10:00~10:10	- 학습목표 및 활동 소개

	이론 학습	10:10~10:30	- 현재의 법과 법원에 대한 이해
	대법정 관람	10:30~10:40	- 대법정 관람
	판사와 대화	10:40~11:00	- 판사님과의 대화
과거	전시실 학습	11:00~11:20	- 전시유물을 통한 과거(역사)의 법원에 대한 이해
미래	체험 학습	11:20~11:50	- 교재인 팝업 북을 활용한 법문화 체험 - 미래의 꼬마 판사가 되어 판결문 작성 체험
	마무리	11:50~12:00	- 설문지 및 활동 정리

## 교재(일부 예시)





■ 참가비 : 없음

## 5. 최초 시행내역(2013. 8. 1. 10:00, 법원전시관)

- 자운초등학교 6학년 김지연 등 서울 시내 8개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학생 15명이 참가함
-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김지연(여, 자운초 6) 학생은 ‘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대법정을 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서진(여, 창원초 6)은 ‘법과 법원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대법정 관람과 판사님과의 대화가 좋았어요, 다음에는 재판을 방청해보고 싶고, 모의법정도 해보고 싶어요.’, 김영빈(남, 내정초 4)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으로 법과 법원, 판사에 대한 체험을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이 왜 중요한지를 느꼈고, 특히 법복을 입어보고 판결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체험이 인상 깊었으며 다음에는 재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라는 등 소감을 밝혔으며, 대부분의 참가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앞으로도 대법원의 청소년을 위한 방학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음

## 6. 앞으로의 추진계획

- 하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다각적 분석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동계 교육 프로그램 때에는 보다 완성도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참가자(총 105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 결과를 분석할 예정임
- 동계방학기간 중에는 중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시행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대법원 교육 프로그램 수요에 부응할 계획임
- 이번 대법원의 교육 프로그램 시행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사법부를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